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1】

2012 1. 30.

## 터키 경제현황과 한-터키 협력 확대방안

### 목 차

I. 터키 경제현황 .....	1
II. 우리나라의 대 터키 경제교류현황 .....	8
III. 양국간 경제산업협력 확대방안 .....	10

국별조사실

작성: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확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koreaexim.go.kr



■ 블루오션의 수출시장으로 BRICs 뿐만 아니라 post-BRICs<sup>1)</sup>의 대표적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한-터키 경제교류 현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I. 터키 경제현황

### 1. 국가개황

#### □ 지정학적 요충지

- 터키는 지정학적 요충지<sup>2)</sup>로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구분되며, 터키를 중심으로 흑해 건너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및 그루지야, 지중해 건너편은 북부아프리카, 유럽지역으로는 불가리아와 그리스, 아시아 지역 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등과 국경을 접함.
- 터키는 또한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시장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터키는 인종적, 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
- 거대시장인 EU와는 관세동맹을 체결한 상태이며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갖춘 터키는 EU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유럽지역의 공장역할이 가능함. 특히, 터키는 흑해 연안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결성된 흑해경제협력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sup>3)</sup>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sup>4)</sup>

1) post-BRICs 시장은 인구, 자원, 구매력 및 거대시장과의 인접성 등 신흥투자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국가들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TVT, E-7, BEM, NEXT-11, VISTA 등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음.  
 2) 터키는 흑해, 마르마라해 및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해협과 다다넬즈해협에 의해 트레이스반도(유럽지역)와 아나톨리아반도(아시아지역)로 구분되며, 면적은 783,562km<sup>2</sup>(한반도의 3.5배)로 유럽지역(러시아 및 CIS 제외) 최대 영토를 보유함.  
 3) BSEC는 1992년 11개국으로 출범(본부: 터키 이스탄불)하였고 2004년 세르비아의 추가 가입으로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SEC 회원국은 터키를 비롯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야, 몰도바, 그리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및 세르비아임.  
 4) 우리나라가 2011년 1월부터 BSEC의 부문별 대화동반자(Sectoral Dialogue Partner: SDP) 지위로 가입함



## □ 대표적 신흥투자시장

- 최근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투자시장의 대안으로 터키가 급부상하고 있음.
  - 터키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가 매년 평가하는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평가에서 2012년에는 183개국 중에서 전년에 비해 2계단 상승한 71위를 기록하면서 점진적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2003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을 브릭스(BRICs)로 언급한 이후 브릭스에 필적할만한 경제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터키를 포함하여 NEXT-11<sup>5)</sup>을 언급함. 또 골드만삭스는 터키 등 므트(MIKT) 4개국<sup>6)</sup>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상무부는 10대 신흥투자시장으로 BEM(Big Emerging Market)<sup>7)</sup>, 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는 경제규모가 급성장할 국가로 VISTA<sup>8)</sup>를 각각 언급하였음. 즉, 브릭스에 이은 포스트브릭스(post-BRICs) 국가로 터키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 터키가 대표적인 포스트브릭스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음.

## 2. 거시경제현황

### □ 지중해 및 흑해 지역의 최대 경제권

- 2011년 기준으로 터키 국내총생산(GDP) 규모<sup>9)</sup>는 7,354억 달러이고, 인구는 7,400만 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GDP)은 9,938달러 수준으로 추정됨.<sup>10)</sup>
  - 터키는 외국인투자법 개정(2003년), 화폐개혁(2005년), 국영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 등으로 경제적 안정을 시현함.

로써 흑해 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흑해 중심국가인 터키와의 경제-산업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5) 터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한국
- 6) 골드만삭스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및 터키를 향후 10년 내 경제규모(GDP)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2010년 12월 예측함.
- 7)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폴란드, 인도, 중국, 아세안, 한국
- 8)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 9) 2010년 기준 터키의 GDP(PPP)는 세계 16위, 유럽 6위 수준임.
- 10) 2010년 기준 산업별 고용 인구는 농림업 25.2%, 제조업 19.9%, 건설업 6.3%, 서비스업 48.6%로 구성됨.



## □ IMF 차관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

- 터키 경제는 2000~01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나 2001년 하반기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지원받기 시작하면서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됨.
- 터키는 해외자금 차입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됨.
- 터키 정부는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데, 2008년 5월 IMF 대기성 차관 지원이 종료된 이후 IMF에 추가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터키의 경제체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IMF 대기성 차관의 지원조건으로 추진된 경제개혁 성과가 다소 부진하였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과 환율 불안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 터키의 재정·외채 관리상황은 유럽지역의 경제위기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므로 터키는 당분간 IMF 차관 등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경제성장 시현

- IMF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이행으로 터키는 2004~06년에는 평균 7%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함.
- 2007년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인플레이에 따른 소비자수요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7%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성장 둔화, 민간소비 침체, 고정투자 위축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침.
- 2009년에는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지역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감소, 금융기관의 여신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8%로 하락함. 2009년 1분기에는 1945년(-15.3%) 이후 최저치인 -1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4분기부터는 산업생산 증가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됨.

- 2010년에는 저금리 기조하의 내수 증가, 여신 증대, 고용 확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8.9%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특히 2010년 2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10.3%에 달해 G20 국가 가운데 중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바 있음.
- 2011년에는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소비지출(여신 급증, 노동시장 여건 호전) 증가, 투자 강세 및 환율 저평가(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인해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물가상승세 진정

- 터키 경제에서 고인플레이션은 경제위기의 유발 요인과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어 왔음. 특히, 2008년에는 식료품(음료), 에너지(원유, 전기), 교통비 등 공급측면의 가격 급등으로 10.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았음.
- 2009년에는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국내외 수요 감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터키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7.5% 수준 이내에서 물가가 관리되었음. 그러나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간접세 인상, 내수 회복 등으로 8.6%(목표치 6.5%)를 기록함.
- 터키 통화당국은 2012~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허용밴드  $\pm 2\%$  포인트)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1년 목표치를 5.5%로 설정하였으나 내수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1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5%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재정수지는 관리 가능

- 터키 재정수지는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지방선거 관련



재정지출 지속,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지출증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심화되어 GDP 대비 6.7%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터키 정부는 2010년부터 휘발유, 담배, 주류 등의 품목에 대한 간접세를 인상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7% 증가)을 재정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10% 증가)보다 낮게 책정한 결과, 2010년 터키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5%로 개선됨.
- 터키 정부는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기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에는 6월 총선 실시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이자지급 감소 등으로 2011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대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표 1> 터키의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e	2012f
G	D	P	730,267	613,764	733,680	735,433	724,519
경	제	성	0.7	-4.8	8.9	7.5	3.0
실	업	률	9.7	12.5	10.7	10.2	10.3
소	비	자	10.4	6.3	8.6	8.5	7.2
재	정	수	-2.2	-6.7	-3.5	-2.4	-2.4
정	부	채	39.5	45.5	43.2	39.7	38.7
		무	/GDP	/GDP	/GDP	/GDP	/GDP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1.

## □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 추진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정책보다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채택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촉진 산업정책을 채택함.
- 터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WT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무역 관련제도를 정비했으며, EU 가입을 위해 1995년 12월에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함. 또 터키 정부는 2001년 금융부문 개혁,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2007년 법인세 감면 및 토지사용 무상지원, 2009년 포괄적 인센티브 부여 등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 경상수지 적자관리의 문제점 잠재

- 터키 경상수지는 상품 수출에 비해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 취약한 금융시장 등으로 터키는 대규모 해외차입 수요가 잠재해 있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주요 무역상대국(EU, 러시아 등)과의 교역규모가 위축되어 수출입실적도 급감하였음. 상품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및 외국인투자 송금 감소 등으로 2009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2.3%인 140억 달러로 200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총수출증가율이 전년의 -19.0% 수준에서 9.3%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리라화 강세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6.6% 수준으로 다시 악화되었음.
- 2011년에는 내수 증가에 따른 자국내 수입 증가,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긴축재정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터키 수출실적의 2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정변으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9.8% 수준으로 확대됨.

## □ 리라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터키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704억 달러, 2009년 말 709억 달러, 2010년 말 807억 달러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4.9개월분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흥투자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미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2008년 9월 1.24에서 12월 1.54, 2009년 3월 1.71 수준으로 일시 급등하면서 리라화도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음.
-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리라화 가치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미달러화 대비 1.5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01년 여름 외환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가치폭락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터키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e	2012f
경 상 수 지	-420	-140	-486	-757	-636
경 상 수 지 / G D P	-5.7	-2.3	-6.6	-9.8	-8.8
상 품 수 출	1,408	1,096	1,209	1,362	1,425
상 품 수 입	1,938	1,345	1,773	2,254	2,212
외 환 보 유 액	704	709	807	879	882
환 율 (리 라 화 / 미 달 러)	1,302	1,550	1,503	1,675	1,874
총 외 채 잔 액	2,773	2,638	2,905	3,214	3,191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0	43.7	39.5	43.7	44.0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및 EIU, *Country Report*, 2011.

### □ 외채구조 개선

- 터키 총외채잔액은 2010년 말 기준 2,905억 달러로 추정되며,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은 2009년 말 43.7%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10년 말에 는 39.5%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1년에는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은 43.7%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은 2008년 29.8%, 2009년 39.9%, 2010년 26.2%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침체로 당분간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터키는 1979년과 1982년에 외채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유동성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84~2005년 IMF로부터 총 520억 달러(승인기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 2008년 5월 3년간의 IMF 대기성 차관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터키 금융·외환시장이 재정, 유동성 및 외채 관리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안정화됨.





## II. 우리나라의 대 터키 경제교류현황

### 1. 수출현황

#### □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25위권 수출상대국

- 터키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입상대국이며, 한-터키 교역규모는 2003년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함.
-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등 지난 60년간 한-터키 양국은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음. 그러나 그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제교류 실적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임.
-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터키와 2010년 4월부터 FTA 1차 협상(앙카라)을 시작으로 동년 7월(서울) 2차 협상을 완료했고, 2011년 3월 3차 협상을 마쳤으며 현재 4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한-EU FTA가 2010년 10월에 체결되어 2011년 7월 발효되었고, EU와 관세동맹(1995년 12월 체결, 1996년 1월 발효)을 체결한 터키의 입장에서는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EU 수준에 준하여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할 상황임.

#### □ 양국간 무역불균형 현상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되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하였는데, 2008년 한-터키 교역규모는 41.4억 달러로 2007년 43.7억 달러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2008년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1억 달러로 2007년 38.1억 달러 대비 10.5% 감소하였음.
- 2009년 중 대 터키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25.9% 감소한 26.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규모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4.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0년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실적은 37.5억 달러, 수입실적은 5.2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2.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572백만 달러), 선박(386백만 달러), 차량부품(299백만 달러), 철도차량(186백만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가스(179백만 달러), 엔진부품(133백만 달러) 등으로 집계됨.

<표 3> 한-터키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2011
한국 → 터키	3,773	2,661	3,753	5,085
터키 → 한국	362	434	516	804
양국간 무역수지	3,411	2,226	3,237	4,281
우리나라 총수출	422,007	363,534	466,384	556,51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투자현황

### □ 터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다소 위축

- 터키 정부는 2001년 천연가스 시장법, 2003년 석유시장법, 2005년 LPG 시장법을 제정하여 원유·가스부문 자유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에너지 정책의 EU 기준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터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규모는 2004년 이후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2005년 EU 가입협상 개시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임.
- 2004-07년 연도별 FDI 유입규모는 28억 8,300만 달러(전년 대비 65% 증가), 98억 400만 달러(241% 증가), 202억 달러(106% 증가), 220억 달러(10% 증가)로 급증추세를 나타냄.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 등으로 FDI 유입 규모는 2008년 195억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2009년에는 84억 달러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년에는 91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



## □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 미흡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6년 1,590만 달러에서 2007년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7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연도별 변동성이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터키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8년 6,930만 달러, 2009년 1억 9,242만 달러, 2010년 6,418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투자금액 누계기준)는 6억 538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2011년 1~9월 중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금액은 4,978만 달러이며, 2011년 9월 말 투자누계는 6억 5,515만 달러로 추정됨.
- 반면, 터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은 2010년 말 기준 955만 달러(신고금액 누계기준)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한-터키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투자누계 (건)
한국 → 터키	69,299	192,419	64,176	605,379 (67)
터키 → 한국	1,308	205	1,977	9,547 (58)

주: 우리나라의 대 터키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한국수출입은행), 터키의 대 한국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지식경제부)임.

## III. 양국간 경제 · 산업협력 확대방안

### 1. 대 터키 진출 기본전략

#### □ 한-터키 경제협력 가능성 풍부

- 양국간 교역과 투자 규모는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터키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터키 자체의 시장잠



재력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터키는 우수한 저임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의 50% 이상이 젊은 계층이며,<sup>11)</sup> 유럽지역에서 독일 다음의 인구(7,482만 명)를 보유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유망시장임.

- 터키는 1963년에 EU 가입을 신청<sup>12)</sup>한 이후 2004년 12월 브뤼셀 EU 정상회담의 결정으로 터키는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했고,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4월 이후 우리나라는 터키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터키와의 경제협력 중요성과 대 터키 진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터키의 입장에서는 EU 가입 이전에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한 무역확대 유인이 크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터키를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보다는 EU 가입 이전 과도기적 관점에서의 수출시장 확대 차원에서 터키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EU-27개국과의 FTA 체결 이외에 추가적으로 터키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터키 자체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시장 확보 뿐만 아니라 터키 현지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흑해 지역,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주변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 양국간 협력 가능분야 발굴 필요

- 터키의 제9차 경제개발계획에서 나타난 국가차원의 중점적인 추진과제는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선, 정보통신기술 확산, 낙후지역 개발, 전자정부 효율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터키재무부(Undersecretariat of Treasury)는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동차, 전동차, 물류·교통,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선호함.
-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에서 대외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수송장비

11) 2010년 기준으로 터키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0~13세는 전체 인구의 26%, 14~60세는 64%를 차지하고 있어 60세 초과 고령인구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35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63%로 노동력이 풍부한 편임 (터키재무부, Turkish Economy, Jan. 2012).

12) 1964년 12월, 터키는 EU 가입을 위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s)을 EU와 체결하였으며, 1987년에 EU 가입을 공식 신청함.



(자동차 포함), 전기기기, 정밀기계부품 등임.<sup>13)</sup> 특히 터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정밀기계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송장비 등의 산업으로 분석됨.<sup>14)</sup>

- 2009년 5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에는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IT융합시스템 등) 및 고부가가치(녹색금융 등) 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한-터키 FTA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터키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교통인프라 및 정보통신), 우리나라가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려는 산업(에너지),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교통인프라 및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교류가 확대 가능함.

## 2. 분야별 협력 확대방안

### □ 제9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 시행

- 터키 정부는 2006년 6월, 제121차 터키 의원총회에서 제9차 7개년(2007-13) 경제개발계획<sup>15)</sup>(법률 제3067호)의 승인으로 “EU 수준 완전 부합, 글로벌 경쟁력 보유, 소득분배 공평,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로서의 발전” 등의 장기비전을 제시하였음.
- 터키 정부가 과거 5개년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7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EU의 예산편성 시기와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음. 2007~13년 중 터키 정부는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보호 및 도시 인프라 개선, 낙후지역 개발, 전자정부 효율성 및 보급 강화 등의 산업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07~13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13)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 기준 (KIEP (2010) "한-터키 FTA 추진 필요성과 분야별 고려사항, 외교통상부 주최 한-터키 FTA 공청회 발표자료, 19-20).

14) 시장별 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지수 기준 (*ibid*, 21-22).

15) 터키는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해 1963년 이후 5개년 경제개발계획(산업계, 학계 및 NGO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가단위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추진함. 터키 정부는 중기개발계획, 산업 및 제도 개발전략, 지역·산업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EU 가입협상 등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전으로 정보사회 구현, 안정적 성장 추구, 소득불평등 완화, 대외경쟁력 제고, EU 가입 시현 등을 제시함.



한 산업별 추진전략을 설정함.

- 터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효율적인 기술·정보 인프라 활용, 낙후 지역의 공공투자 제도 개선,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이들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특히, 중기개발프로그램(MTP)은 분야별 추진전략 등을 반영하여 매년 수립되는데, 2011~13년 중기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재정관리, 사회보장기금의 효율적 관리,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억제, 수력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터키의 경제개발 사업 참여

- 터키의 경제개발계획 수요에 부응하여 터키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터키 내수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함.

### (1) 에너지산업

- 터키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발전설비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개발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의 수력·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원전 등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터키의 전력 수요는 1980년대 이후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연 8%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향후 2017년까지 연평균 6.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터키송전공사(TEIAS)는 2017년까지 전력 공급량을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터키국가기획청(DPT)이 수립한 제9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르면, 2007~13년간 터키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6.2% 증가하고, 전기 소비는 연평균 8.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 에너지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신규 발전소 건설에 973억 달러를 포함하여 에너지 부문에 총 1,286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터키 정부는 복합화력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터키에서 가동 중인 상업용 원전이 없으므로 터키 정부는 2023년까지 10,000M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흑해연안 시놉(Sinop) 지역, 지중해연안 아쿠유(Akkuyu) 등지의 원전 건설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 (2) 교통인프라산업

- 터키 정부는 제9차 경제개발계획 추진 기간에 철도의 화물 수송량을 늘릴 계획인데, 동 계획에 의해 터키철도청(TCDD) 민영화, 보스포러스 해협 해저터널 공사, 앙카라-이스탄불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제9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터키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르마라 및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 참여가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로템이 고속철도망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터키는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를 희망함.
- 향후 증대될 대중교통 수요와 경제개발 계획상에 나타난 철도 인프라 개선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도시내 지하철공사, 주요 도시간 연결철도 및 해저터널 건설 프로젝트<sup>16)</sup>, 철도차량 및 전동차 수출·투자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됨.
- 터키철도청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앙카라-이스탄불 고속철도 등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데, 2007~13년 터키 정부예산에서 교통·통신 인프라 부문에 총예산의 26%(440억 리라)가 배정될 정도로 터키 정부는 교통인프라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 수준의 개선 산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흑해 및 카스피해 지역 등 주변시장을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이런 교통 인프라 사업은 터키 주변의 물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터키는 산악지형, 도로건설 재원 부족 등으로 도로망 확충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정체와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임.

16) 터키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의 SK건설 컨소시엄이 2011년부터 참여하고 있음.



<표 5> 분야별 터키 정부예산 배정금액(2006-13)

분 야	2006		2013		2007-2013	
	금액(백만 리라)	비율(%)	금액(백만 리라)	비율(%)	금액(백만 리라)	비율(%)
농 업	1,375	7.7	5,040	11.8	17,278	10.2
광 업	640	3.6	1,141	2.7	5,514	3.3
제 조 업	445	2.5	169	0.4	1,517	0.9
에 너 지	2,579	14.2	2,592	6.0	17,750	10.5
교 통·통신	5,674	31.8	10,984	25.6	44,023	26.0
관 광	48	0.3	198	0.5	768	0.5
주택 건설	109	0.6	390	0.9	1,310	0.8
교 육	2,494	14.0	9,399	21.9	32,405	19.1
보 건	1,268	7.1	3,702	8.6	14,293	8.4
기 타	3,243	18.2	9,239	21.6	34,636	20.4
합 계	17,824	100	42,855	100	169,495	100

자료: 터키국가기획청(DPT).

### (3) 정보통신산업

- 터키는 광범위한 전화 및 휴대폰 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ICT) 산업의 급성장으로 터키도 ICT를 경제사회적 변화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수준을 받은 엔지니어와 숙련된 컴퓨터 기술자를 확보한 데 기인함.
- 이에 따라 터키 IT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며 국가차원의 정보 인프라 확충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투자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술산업단지(techno-parks)와 기술개발지역(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의 설치·운영으로 터키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터키는 통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으나,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는 비교적 낙후되어 있음. 또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장비 업체는 영세한 수준으로 네트워크장비 부품들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 인구 연령대가 낮은 터키 인구구조상 정보통신기술 개발수요가 잠재되어 있고



터키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터키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교육사업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터키 IT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56억 달러에서 2010년 64억 달러로 그 시장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sup>17)</sup> 제9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르면, 2007-13년 간 휴대폰 가입자비율은 연평균 5% 상승하여 2006년의 64%에서 2013년에는 90%로 상승하고, 인터넷 사용자비율은 동 기간 중 20%에서 60%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의 터키 진출확대는 터키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촉진,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주변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립

- 터키 원유·가스 산업은 1970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터키는 흑해 및 카스피해 연안국과 중동지역에서 유럽지역에 이르는 원유·가스의 주요 수출경로로서 경제적 입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즉, 송유관·가스관이 흑해, 지중해, 중동, 서유럽, 아시아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함.
- BTC(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터키) 송유관('05.5월 완공), 나부코(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 송유관('02.10월 계약체결), 삼선-제이한(Samsun-Ceyhan) 송유관('06.4월 사업승인) 등은 터키가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된 주요 사례임.<sup>18)</sup>
- 세계 원유·가스 자원 매장량에서 터키 주변국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터키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터키의 송유관·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터키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17)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전체에서는 통신기술(CT) 시장규모가 전체의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18) 2005년 5월에 건설되어 2006년 5월부터 가동된 100만 배럴/일의 수송능력을 갖춘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제이한(Ceyhan)(BTC) 아제리(Azeri)산 송유관이 제이한 지역(터키 지중해 항구)을 경유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부터 가동한 바쿠(Baku)-트빌리시(Tbilisi)-에르주룸(Erzurum) 가스관도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로 연결되어 있음.



- 터키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유대관계로 결속되어 있으며, 터키의 건설업체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등 터키의 영향력이 큰 편임.
- 또한 터키 업체의 중앙아시아 통신시장 진출, 터키어 신문의 발행, 중앙아시아 정부의 터키 유학 지원 등을 통해 터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터키는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며 중재자적 역할을 함.
- 이러한 터키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터키 건설기업의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의 건설시장 참여 경험과 토목공사 수행능력에 대해 우리 기업의 건설기술과 경험을 전략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주변시장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터키는 흑해경제협력기구의 중심 국가로서 주변시장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흑해무역개발은행(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BSTDB)<sup>19)</sup>과의 업무제휴, 회원(옵서버) 가입 등을 통해 흑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프라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성하고 흑해 지역의 개발금융에 공동 참여·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 양국간 교역 활성화 추진

- 1996년 이후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시행으로 EU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터키산 자동차도 EU로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르노, 피아트, 현대자동차, 도요타, 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가 터키에서 생산을 개시하였거나 조립공장을 설립하였음.
- 터키 진출 자동차 업체는 기존 자동차산업 진출업체에 대한 현지 부품생산을 확대하여 EU 시장에 대한 수출증대가 가능하며, 브리지스톤(Bridgestone), 굿이어(Goodyear), 피렐리(Firrelli) 등 굴지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터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음.

19) BSTDB는 1997년 출범(본부: 그리스 테살로니키)한 국제개발금융기구로서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의 자매 기관이며 가입국은 BSEC 회원국과 동일함.



- 현재 한-터키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양국간 무역불균형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역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무역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임. 따라서 한-터키 FTA 추진을 통해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 FTA 추진 이후에도 무역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다면,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 고용증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한-터키 FTA가 체결되면, 관세인하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생산비용의 영향으로 터키 현지에 대한 완성 자동차공장 설립, 자동차 부품업체 진출 등 자동차산업의 대 터키 수출·투자의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의 대 터키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EU 시장 이외에도 향후 자동차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등 제 3국 시장으로도 자동차 및 관련제품의 수출 확대가 가능함.

#### □ 교류 확대, 지역연구 강화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

- 터키는 한국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이후 우리나라를 형제국가로 인식하며 우리나라에 대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터키와 한국의 우호적 친밀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류는 미흡한 실정임. 양국간 정서적 친밀감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층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차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전몰용사 가족에 대한 후원 및 기념사업, 한국전 참전 기념식 참여 등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우방국가로서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민간차원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영화,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상호 추진하여 양국간 문화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화행사의 교류는 나아가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터키로의 진출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터키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간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도 있음. 양국간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한-터키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터키에 대한 연구 지식기반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험도 아직 덜 축적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터키 시장에 대해 전문화된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터키 시장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터키의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터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즉,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여 터키 시장진출에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정부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또 지역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정보 지식의 축적과 전문인력의 양성은 터키 시장의 진출 및 경제협력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임.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